

	<b>논 평</b>		<b>충남도당</b>
2019년 8월 23일(금)		대변인 : 김 연(010-3355-4074) 담 당 :	
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, 신부더샵 3층 / 041-569-1500			

## 정부의 한·일 군사정보보호협정(GSOMIA) 종료 결정을 지지한다

정부가 8월22일(목) 한·일 군사정보보호협정(GSOMIA·지소미아)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.

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(위원장 어기구)은 “일본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,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‘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(일명 백색국가 리스트)’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”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.

아울러, 아베정권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국제자유무역질서까지 어지럽히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시도를 계속해 온 상황 속에서 한·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,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하며 지지의 뜻을 밝힌다.

일본정부는 이제라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보복을 거두고,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.

또한, 우리 정부는 이번 한·일 군사정보보호협정(GSOMIA·지소미아)

종료에 우려를 표명한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한반도의 안보유지에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.

더불어민주당 충청도당 역시 모든 역량을 다해 우리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다.